

AI in Mobility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언

EY한영 산업연구원

May 2025

Insight Report #25-055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Report Introduction

본 리포트는 '25년 Mobility Conference에 사용된 자료를 보고서 형태로 편집, 발간한 것임

About the Mobility Conference

EY한영은 자동차 업계의 부품사 포함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모빌리티 컨퍼런스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제 1회를 시작으로 하여 올해 2025년까지 총 다섯 차례의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습니다.

EY한영은 컨퍼런스를 통해 자동차 부품사 및 관련 기업들의 사업적 고민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컨퍼런스는 최근의 화두인 AI를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AI는 자동차 산업 밸류체인에 유례없는 변화와 기회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국내 모빌리티 산업이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Past Mobility Conference ('21 ~ '24)



Contents

I. 산업 환경의 파괴적 전환: Generative AI의 등장

II. AI 활용을 통한 사업기회

III. AI 사업 기회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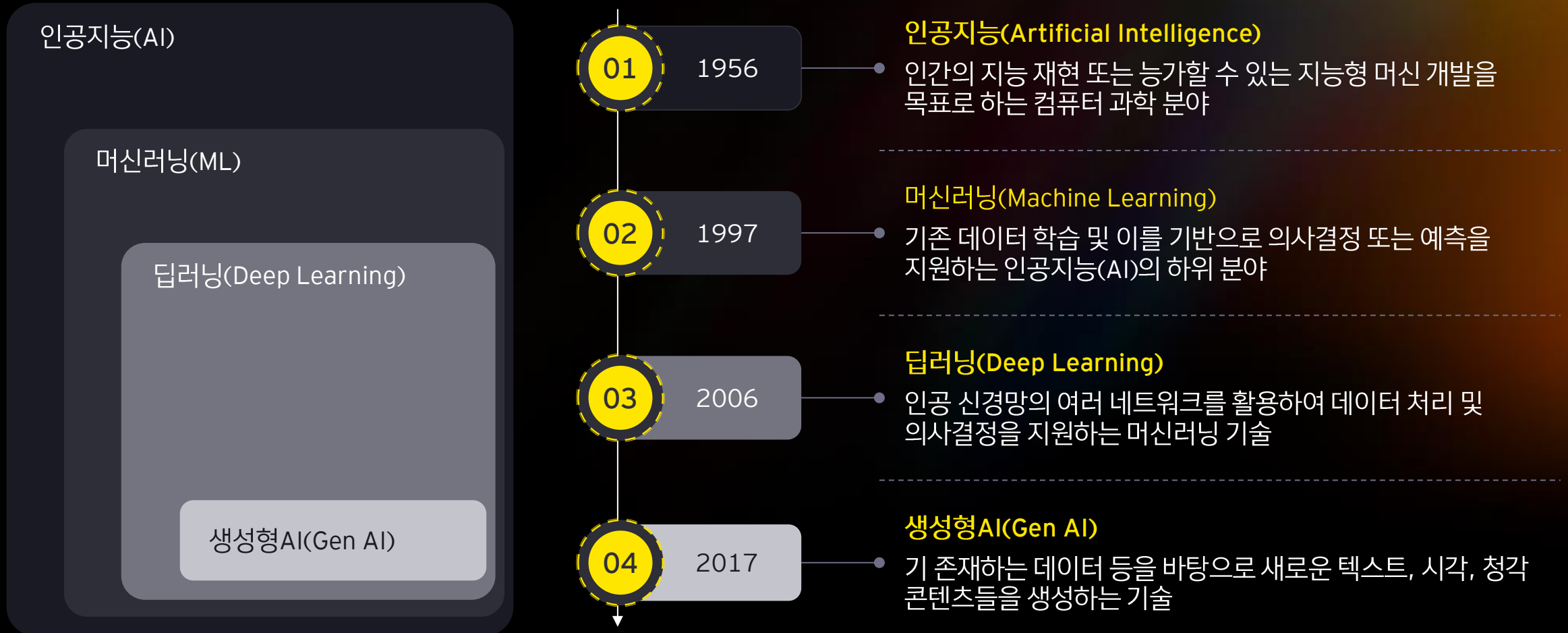
IV. 정부 정책을 활용한 AI 투자

I

산업 환경의 파괴적 전환: Generative AI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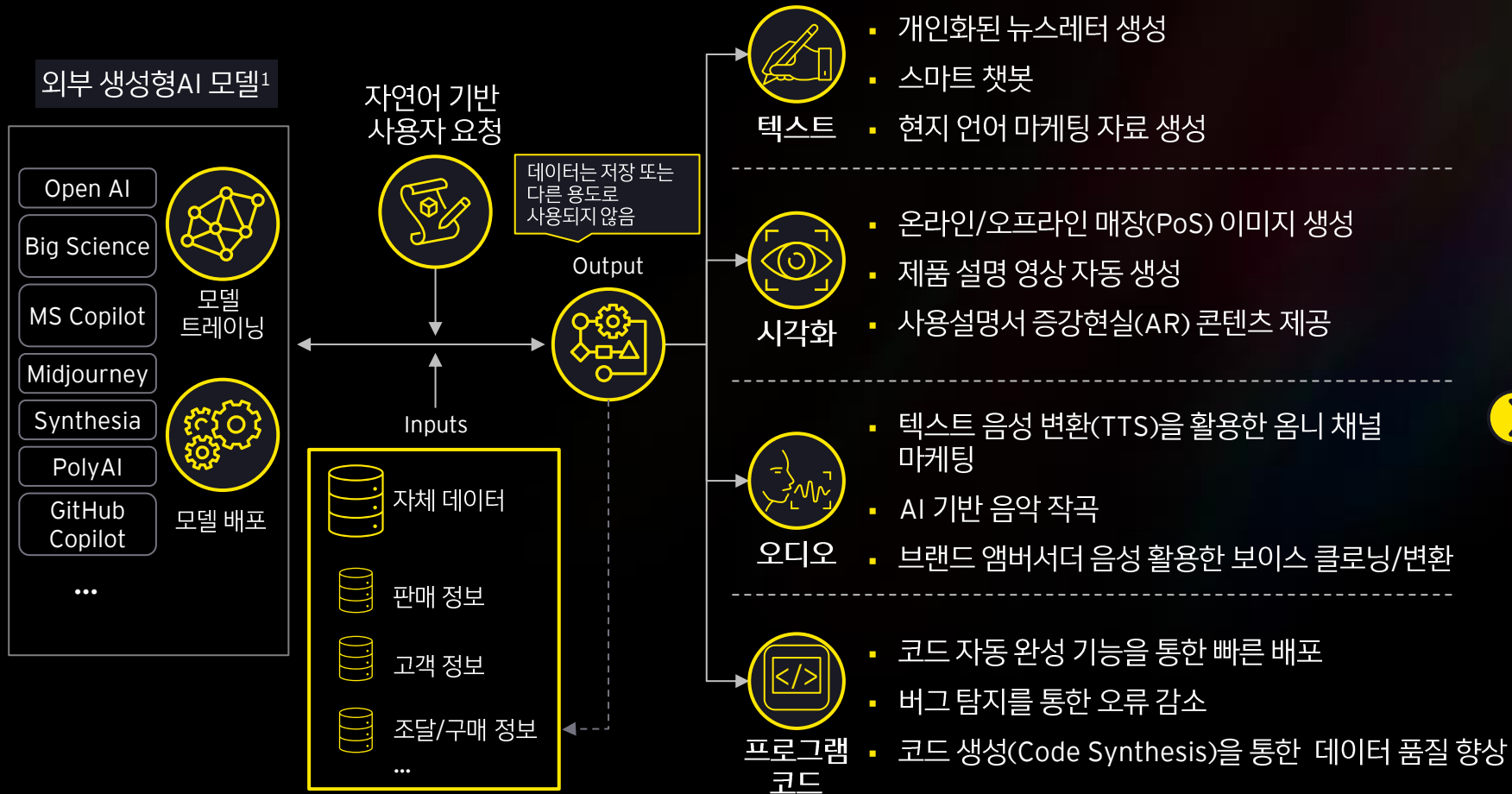
생성형AI (Generative AI) 특징

생성형 AI는 인공지능의 진화과정에서 나타난 기술로, 원본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측면에서 차별화될 수 있음



기업 자체 Data를 활용한 생성형AI의 가능성

생성형 AI는 자체 데이터와 비즈니스 로직 결합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 및 사례에서 전례 없는 비즈니스 혁신 및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 사전 학습된 모델은 외부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어, 빠른 배포, 높은 유연성 및 비용 절감 측면 장점이 있음
- 기업의 자체 데이터 및 고유 비즈니스 모델에 맞춤형 AI모델을 통해 가치 창출
- AI는 학습 목적으로 입력 및 출력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으므로, 기밀 데이터에 대한 보안이슈에서 안전함

생성형AI 활용 영역 예시

생성형 AI는 의료, banking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방안이 존재함

ILLUSTRATIVE



생성형AI 혁신 단계적 특징

생성형 AI는 특히 기존 사무직 업무의 가치 사슬을 혁신하거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것임



Now

반복적이고 수작업 중심
업무 자동화

예시

“글로벌 및 한국 지역의 사업 운영
내용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공유”



Next

대규모 콘텐츠 **개인화**

예시

“고객층 또는 시장에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제품 디자인 변경에
대한 제안 생성”



Beyond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파괴적 혁신

예시

“제공된 리스크 시나리오 기반으로
공급망 네트워크 설계안 생성”

기업 내부 Function별 생성형AI 적용

생성형 AI는 기업 운영에 있어 사람을 완전 대체하지는 않지만, 전사 모든 영역을 통해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음

운영 (Operation)

-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
- 자동화 기반 비용 절감

제품 및 서비스 (Products & Services)

- 맞춤형 상품 제공 기반 고객 만족도 제고

재무 (Finance)

-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기반 재무 리스크 관리

인사/조직 (People)

- 인력 채용 프로세스 단축
- 개인화된 교육 제공



마케팅 및 영업 (Marketing & Sales)

- 정교한 고객 타겟팅
- 고객 경험의 개인화

기술 (Technology)

- 데이터 분석 강화
- 사이버 보안 기술 강화

법무 (Legal & Compliance)

- 법률 검토 및 계약 분석
- 규제 준수 모니터링 자동화

개발 (Research & Dev.)

- 아이디어 도출
-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기업 AI 투자 현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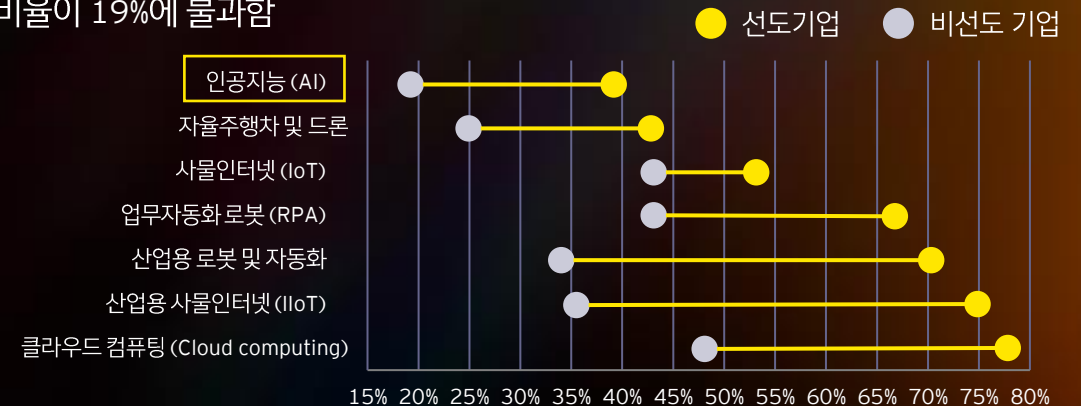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혁신의 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역량 구축이 늦어지는 기업은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이 있음

AI 투자현황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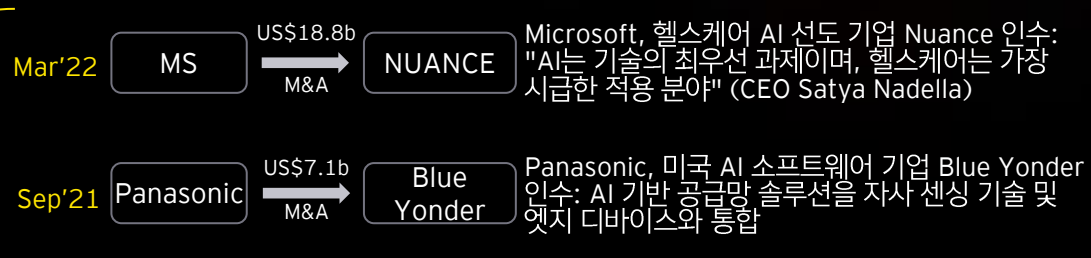


기업의 기술 투자 진행 성과²

선도 기업의 39%가 AI 도입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실현한 반면, 비선도 기업은 그 비율이 19%에 불과함



관련 주요 Deals



투자 성장 동력



기업 및 소비자 전반에서 AI (예: ChatGPT)의 급속한 도입 확대

헬스케어, 소비자재, 자동차, 금융 등 주요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

기업의 데이터 중심 전략 강화 및 기술 고도화 가속

프로세스 효율화 및 비용 효율성 향상에 기여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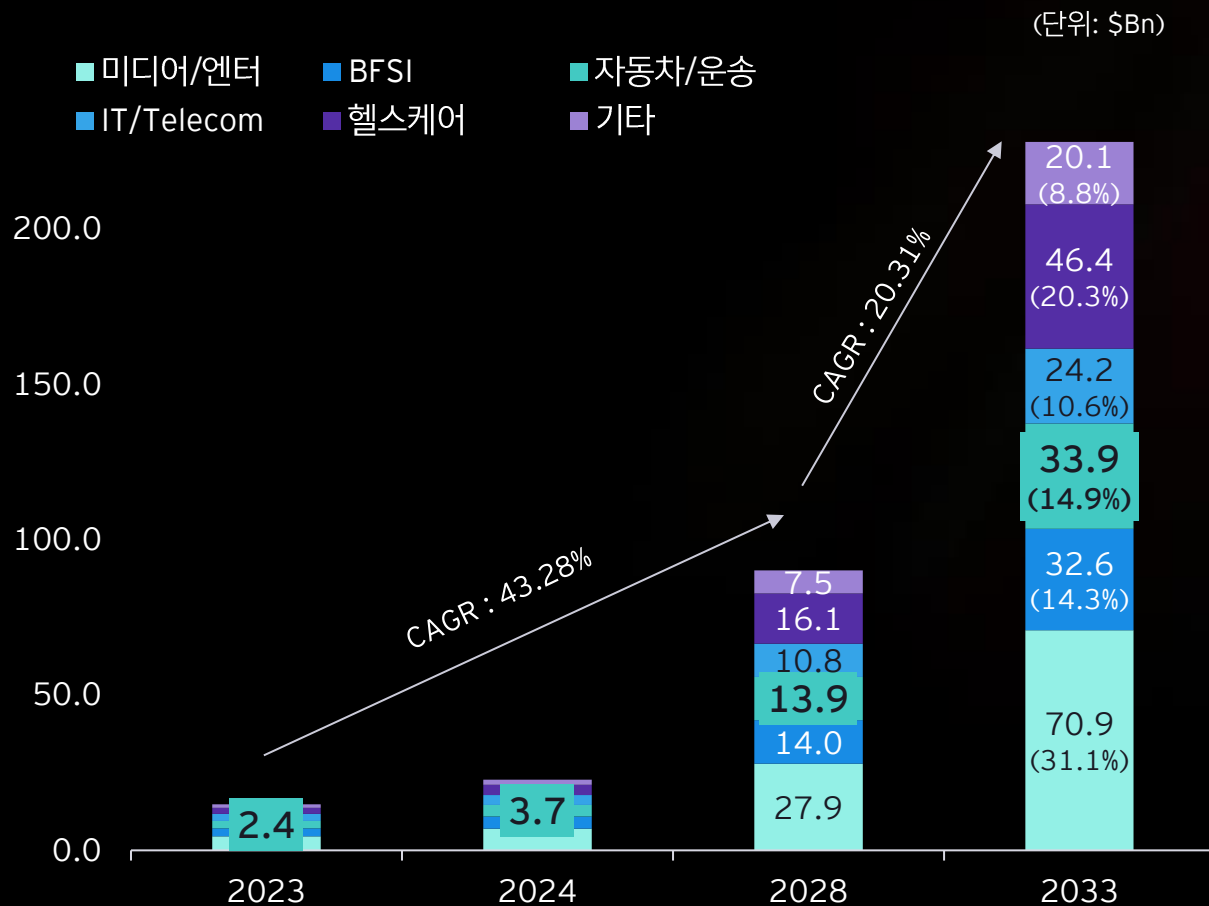
AI 활용을 통한 사업기회

- Mobility 섹터 중심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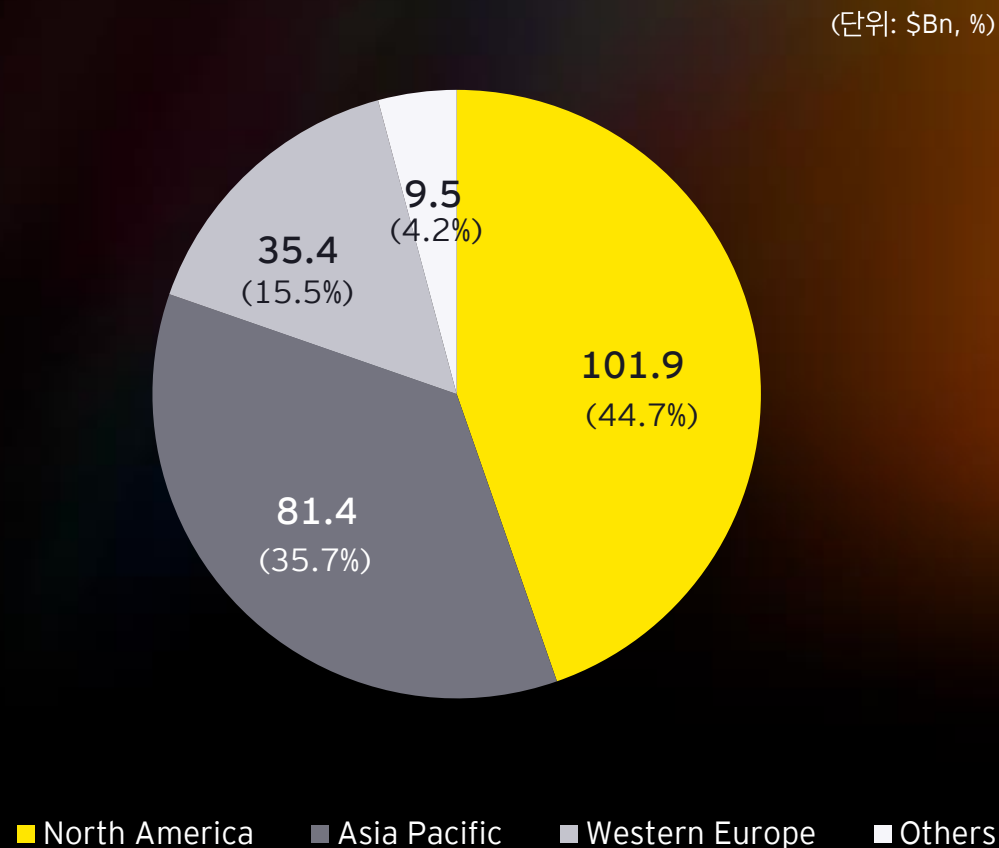
생성형AI 시장 전망

생성형AI 시장은 2033년까지 북미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모빌리티 섹터는 약 15%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생성형AI 섹터별 글로벌 시장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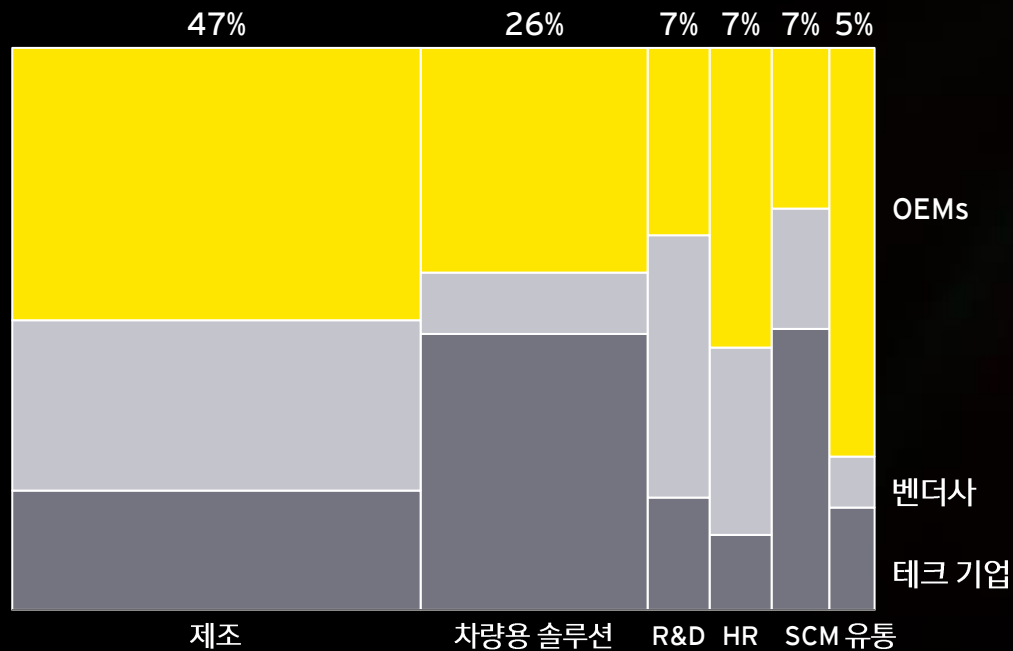
생성형 AI 시장 권역별 규모 및 비중 ('33)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AI 투자현황 및 적용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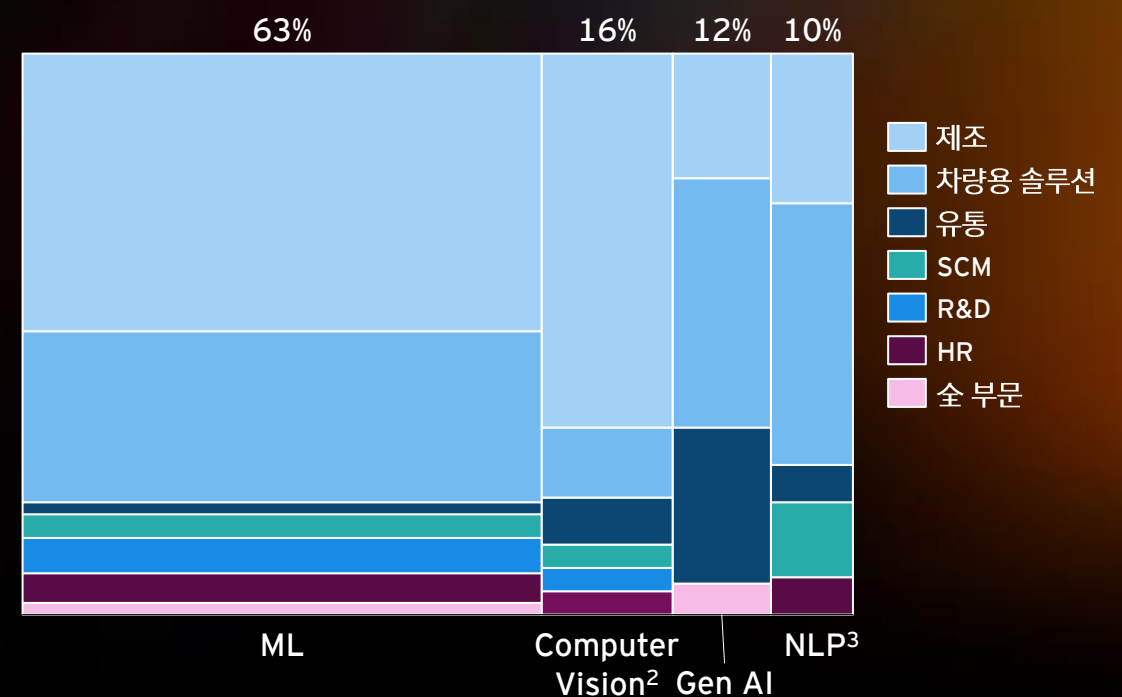
제조 및 연구개발 부문 AI 투자는 OEM 및 1차 협력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반면, 테크 기업들은 On-device(차량) 중심 AI 및 SCM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기술 관점에서는 머신러닝과 비전 부문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임

모빌리티 산업 Value Chain별 AI 투자 및 주요 Players



- 제조 및 R&D 영역의 AI 투자는 OEM과 1차 협력업체가 주도
- 테크 기업은 차량용 솔루션 및 SCM 분야의 AI 투자를 리딩

Value Chain별 적용되는 주요 AI 기술¹



- ML 및 컴퓨터 비전이 제조 및 차량용 솔루션 분야 핵심 투자 기술
- Gen AI 및 NLP는 R&D, SCM, HR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AI for Company & AI for Customer

모빌리티 섹터 내 AI 적용 기회는 크게 기업 내부 운영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AI for Company'와 고객 가치를 혁신하기 위한 'AI for Customer' 유형이 존재함

AI for Company

개념 및 적용범위

- 기업 내부 운영 전반의 AI 도입으로 의사결정 지원 및 업무 자동화 등을 통한 비용 효율화를 달성
 - [적용범위] 제조, SCM, R&D, HR, 유통
 - Value chain 내 투자비중 74%

적용 방향성 및 특징

- [방향성]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 수요 예측, 생산성 제고, 불량률 감소 및 재고 최적화, 인건비 절감 등
- [특징] 실사용자 중심의 솔루션 제공
 - 관리자, 실무자, 공장 오퍼레이터 등 기업 내부 현장 요구를 반영한 최적화 모델 설계

활용 데이터

- 기업 내부 정형·비정형 데이터 (ERP, MES, CRM, 물류·공정 데이터 등) 학습 기반

AI for Custo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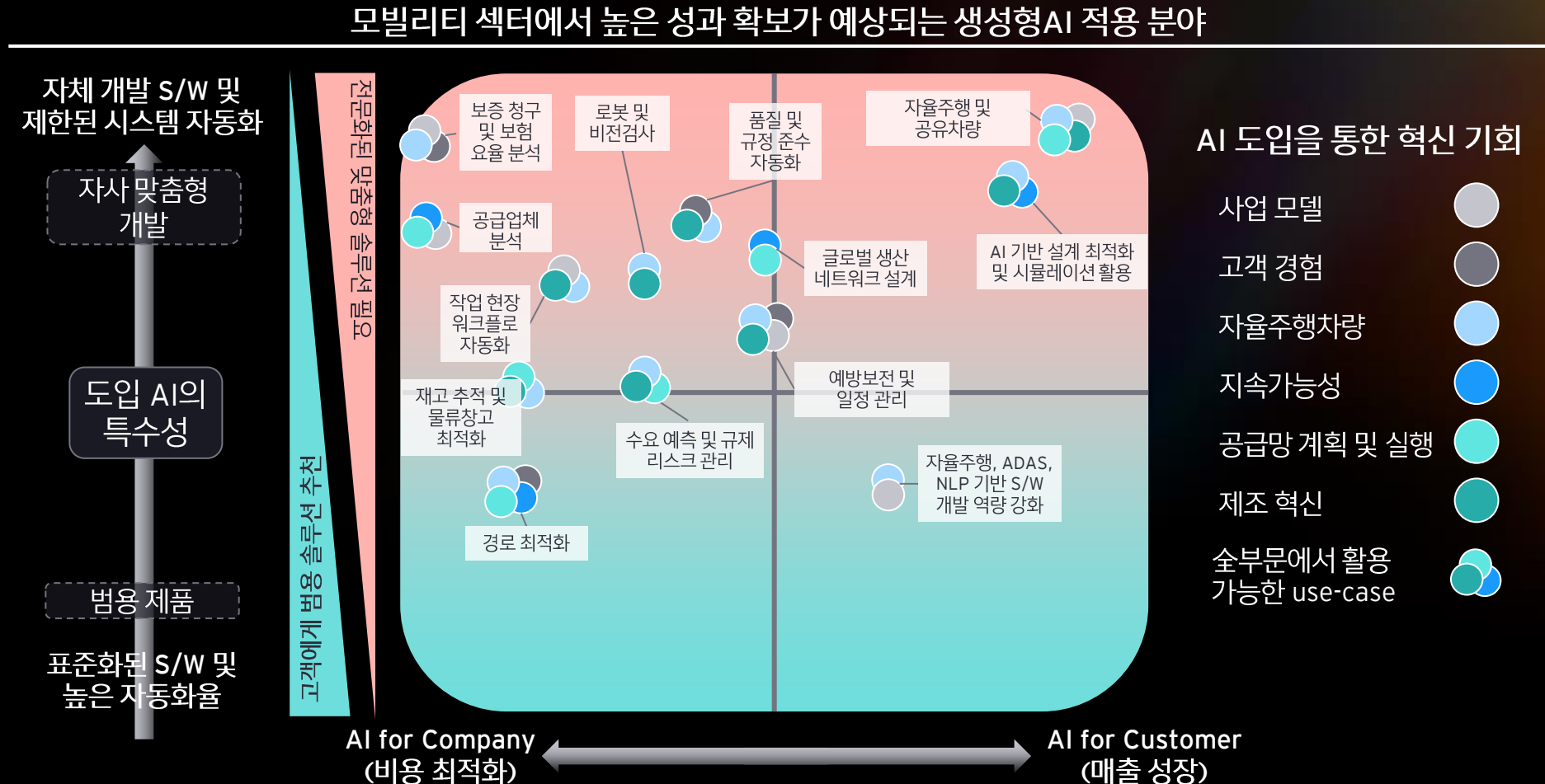
- 주로 고객 경험 향상 및 서비스 기반 수익창출 관점에서 AI가 적용되며, 자율주행 및 인포테인먼트 등의 영역이 대표적
 - [적용범위] 차량용 솔루션
 - Value chain 내 투자비중 26%

- [방향성] 시장 지배력 확보를 통한 매출 증대
 -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판매 이후의 After-sales 서비스로 지속적 수익 창출 및 고객 관계 강화
- [특징] Connectivity와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구성
 - 실시간 서비스 제공을 위해 SDV¹ 기반 V2X², 클라우드, OTA³ 연결 등의 Connectivity가 필수적

- 실시간 외부 고객 데이터 (운전 패턴 등) 및 기 확보한 사용자 데이터 (CRM 등) 학습 결과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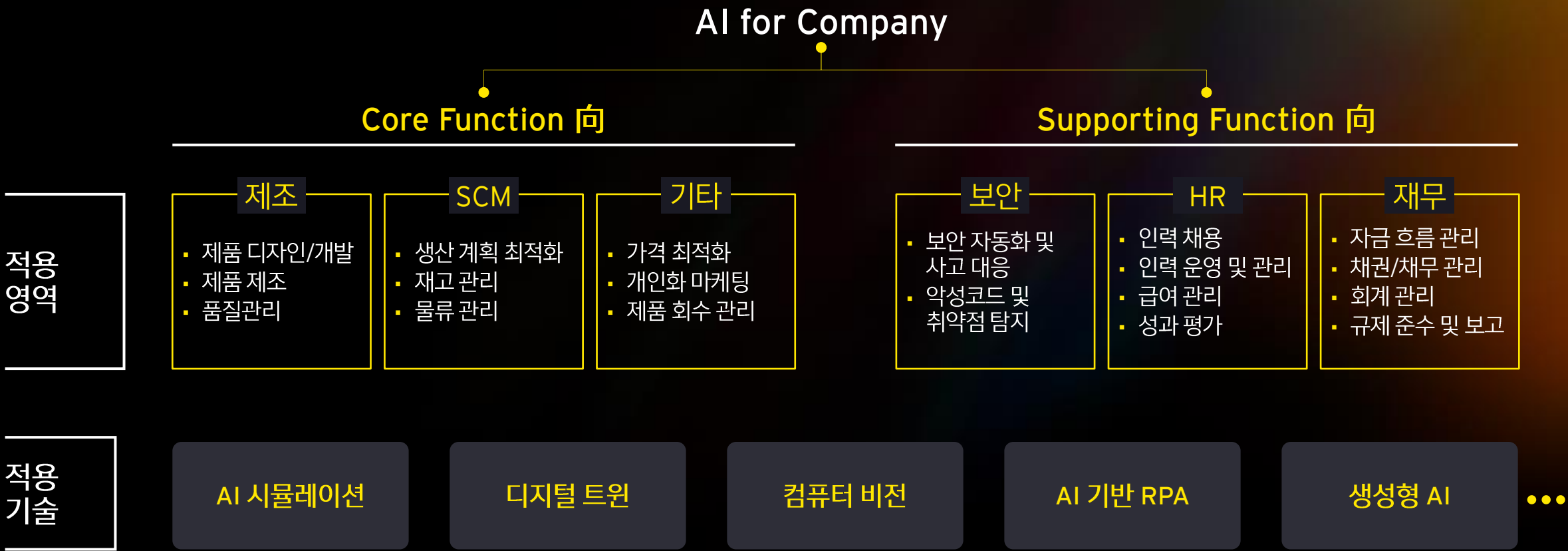
맞춤형 AI 솔루션 개발의 필요성

높은 성과 창출이 예상되는 모빌리티 AI 솔루션들은 대부분 자사 맞춤형 개발이 필요한 분야들임



AI for Company의 적용 가능 영역

내부 운영 효율화를 목표로 하는 AI for Company는 Value chain 및 지원부분 쉰 영역에서 적용 검토 가능하며,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음



[Back-up] Value chain 内 AI 적용 영역 상세

AI는 모빌리티 섹터 내 Value chain 전반에 적용되고 있으며, 애프터마켓 및 부가서비스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음

高

↑

AI 도입 효과의 상대적 규모 (영향력)

↓

低

R&D 및 제품 혁신	소싱 및 공급망 계획	제조 및 운영	품질관리	물류 및 유통	판매 채널 관리	고객 경험
AI 기반 설계 통한 제품 출시 속도 개선	수요 예측 및 규제 준수 관리	생산 네트워크 설계	공정 이상 징후 탐지	라스트마일 최적화	판매 및 서비스 가격 최적화	수명종료 제품 회수 최적화
S/W 개발 (NLP, ADAS)	비용 및 소싱 최적화	현장 워크플로우 자동화 및 예지 보전	컴퓨터 비전검사	창고 레이아웃 최적화	옴니 채널 관리	현장 서비스 ¹ 운영 최적화
가상 시뮬레이션 및 시제품 개발 (디지털 트윈 포함)	공급업체 부정 리스크 탐지 및 분석	수율 및 리드타임 최적화	실시간 품질 보증 관리	재고 추적 및 최적화	고객군 및 트렌드 분석	보증 정책 정교화 및 보험 요율 분석
커넥티드 제품 개발	공급업체 통합/관리	정밀 공학 모델링	문제 발생 원인 분석	스케줄 관리 및 입출고 수요 예측	개인화된 마케팅	커넥티드, 공유, 자율주행 제품 대응
고객 니즈 분석	재고 관리 최적화	에너지 사용 관리 및 소비 최적화	작업장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	다중 운송수단 최적화	챗봇 및 고객 응대 자동화	개인 맞춤형 고객 지원 및 감정 분석

애프터마켓 및 부가서비스
영역으로 확장 中

AI for Company 도입 사례

모빌리티 산업에서는 OEM 및 1차벤더들을 중심으로 제조 및 품질관리, SCM 영역에서의 AI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세스 개선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음

제조 및 품질관리

기업	목적	도입사례
BMW X Zapata AI	제조시간 가속화	Car2X¹ 및 AIQX² 등 자체 AI S/W 혁신을 통한 차량 제조 속도 향상
현대자동차 X Boston Dynamics	안전성 강화	자율 네비게이션, AI 비전기술 및 원격 제어 기능 탑재 로봇을 활용한 공장 내 위험 감지 및 정밀 점검
Continental X Microsoft, NTT DATA	개발 가속화	Azure 기반 AI 도구를 활용해 제품 개발 단계에서의 의사결정 가속화 및 오류 감소
Bosch	품질관리 및 생산 효율화	- AI 기반 VisionSmart 솔루션을 활용해 불량률 및 재작업 감소 - IoT 및 AI 기반 IndAIGenious 솔루션을 활용해 월 20시간의 오작동 시간 절감

S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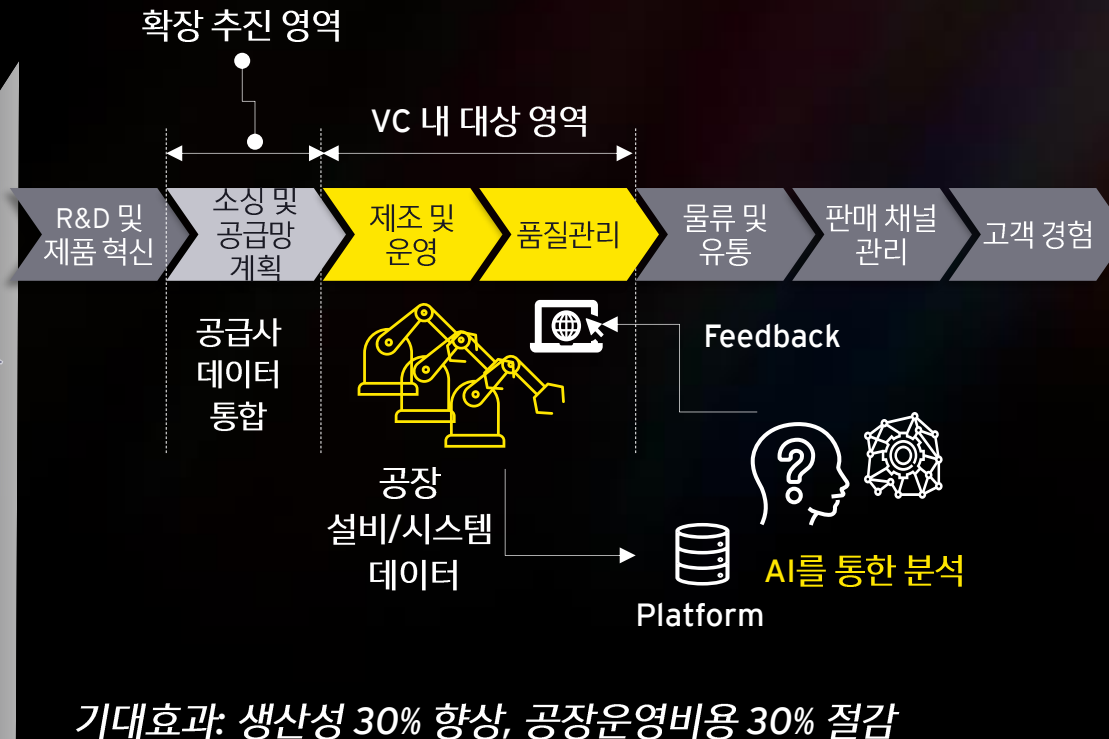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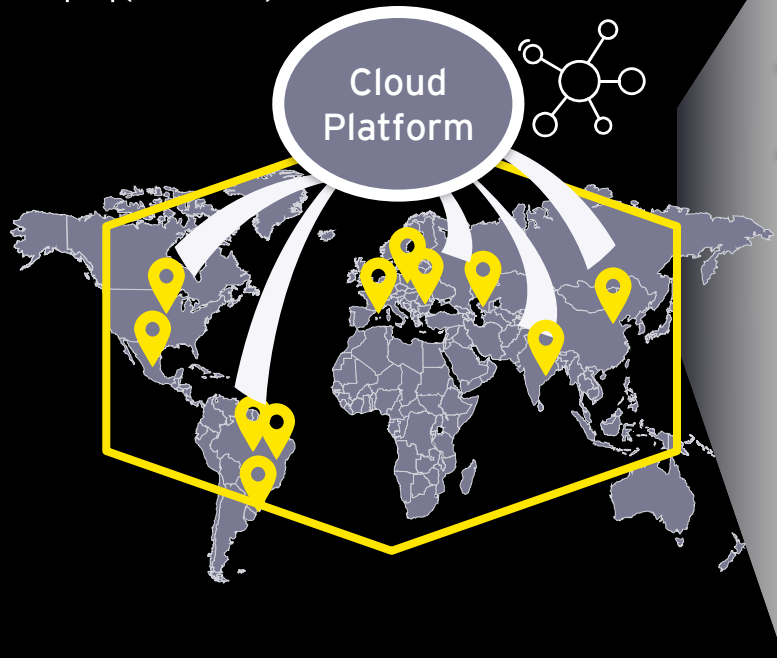
기업	목적	도입사례
BMW X Prewave	공급망 리스크 식별	AI를 적용한 공급망 솔루션을 활용한 Tier-N 공급망 리스크 및 원자재 가격 모니터링
JLR X Everstream Analytics	공급망 리스크 식별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자연재해, 파업 등 잠재적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 식별
현대모비스	공급망 효율화	AI 활용 차량용 AS 부품 공급 관리 시스템으로 전세계 부품생산과 물류 이동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Bosch	공급망 효율화	AI를 활용해 실시간 수요 및 변동에 따른 재고, 운송 경로, 공급업체 결정을 조정해 병목현상 및 과다 재고 방지

AI for Company 적용 사례 Deep Dive

폭스바겐은 AWS와의 협력을 통해 산업용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것에 AI를 내재화 시켜 개별 공장의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효과 뿐만이 아니라 공급사 전체를 포함한 공급망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폭스바겐 Industrial Cloud 사례

- 폭스바겐의 전 세계 주요 공장 및 공급업체를 연결하는 산업용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16~'25)



Lessons Learned

- 전략적 인프라로 AI 활용
: AI를 조직 전체를 연결하는 인프라 설계하여 활용 (not 단발성 tool)
- AI를 통한 제조 경쟁력 확보 (AI는 생존도구)
: AI를 통해 제조업의 공급망 경쟁력 강화
- 데이터 연결과 표준화가 중요
: 공장과 공급업체를 연결을 위한 포맷 표준화

'AI for Company'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 방향성

Value Chain 전 영역에 AI 도입 가능 영역 존재

- Core Function 뿐만 아니라, Support Function 에서도 적용 가능 솔루션 이미 등장
- 세부적으로, R&D, 소싱, 제조, 품질관리, 물류 및 유통, 판매채널 관리, 고객 경험 관리 등 모든 영역에 AI 적용 가능 영역 존재



선도사는 제조 및 SCM 영역 중심으로 AI 도입 추진 중

- 선도 OEM 및 글로벌 Tier 1 사업자들은 제조 및 SCM 영역 중심으로 우선 도입 중
- 최근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는 SCM영역에서는 공급망 리스크 식별과 효율화에 집중
- 제조영역에서는 안전성과 품질 관리 솔루션에 집중 하고 있음



기 증명된 생산성 증가 효과

- 폭스바겐의 Industrial Cloud 사례 기준,
 - 제조 현장 설비 단위 데이터 수집
 - AI/ML 을 통한 제조 및 품질 개선
- 공장 생산성 30% 향상, 공장 운용 비용 30% 절감 기대
- 공급망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공급사 확대 추진中

**Best Practice 사례를 중심으로
Fast-Follower가 되기 위한 전략 수립 필요**

AI for Customer in Vehicle의 주요 영역

Mobility 산업에서의 AI for Customer는 'ADAS', '스마트 콕핏'이 주요 서비스 영역이며, 이를 위해서는 Connectivity 확보가 필수적임

AI for Customer

핵심 영역

주행제어 솔루션

- 자율주행 및 주행 보조 시스템 (ADAS)

핵심 영역

탑승자경험 솔루션

- 스마트 콕핏
 -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 음성 인식 및 제어
 - 스마트 네비게이션

AI 적용을 위한 Connectivity 요소

실시간 데이터 수집

- 외부 환경 및 운전자 등 다양한 출처에서의 실시간 데이터 확보

클라우드 연산

- 클라우드 연동 기반의 빠른 AI 연산 분산 처리

OTA

- 지속적 개선을 위한 무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V2X

- 위험 회피 및 주행 최적화를 위한 타 차량, 도로 인프라와의 통신

플랫폼 서비스

- 맞춤형 사용자 경험 제공을 위한 네비게이션, 음성인식 등의 서비스 연동

AI의 학습 및 판단, 외부환경 및 타 차량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Connectivity 확보가 중요

[back-up] 글로벌 커넥티드카 시장 성장

커넥티드카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CAGR 18% 수준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AI for Customer의 보편화를 위한 기본 토대가 갖추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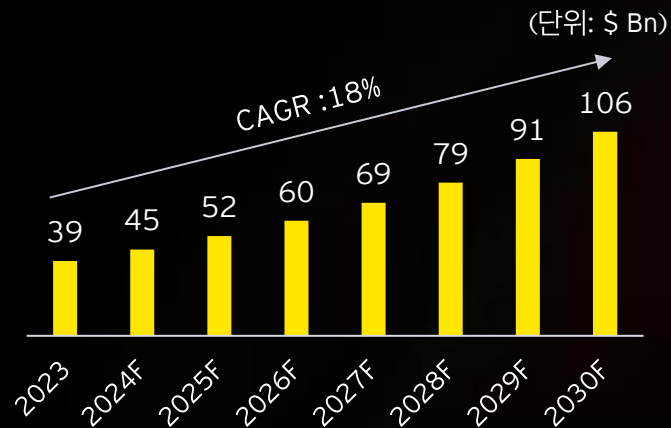
글로벌 커넥티드카 누적 보급 대수



2023

2030F

글로벌 커넥티드카 시장 규모



시장 성장 견인



유럽은 4G/5G 셀룰러가 기본 표준으로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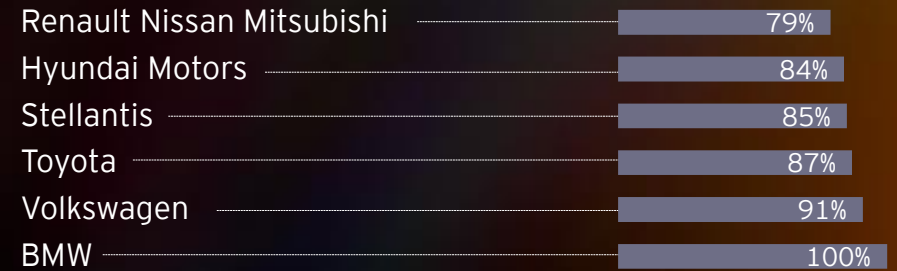


EU '19년 이후 생산 차량 및 LCV에 eSIM 탑재 의무화



차량 내 결제, OTA¹ 등 커넥티비티 기반 서비스 확대

'26년 OEM별 커넥티드카 판매 비중 전망



~'26년 글로벌 커넥티드카 판매 비중 전망 (3Q23 기준)



88.8%



86.2%



83.0%



81.5%



69.9%



68.2%



48.9%



31.3%

기타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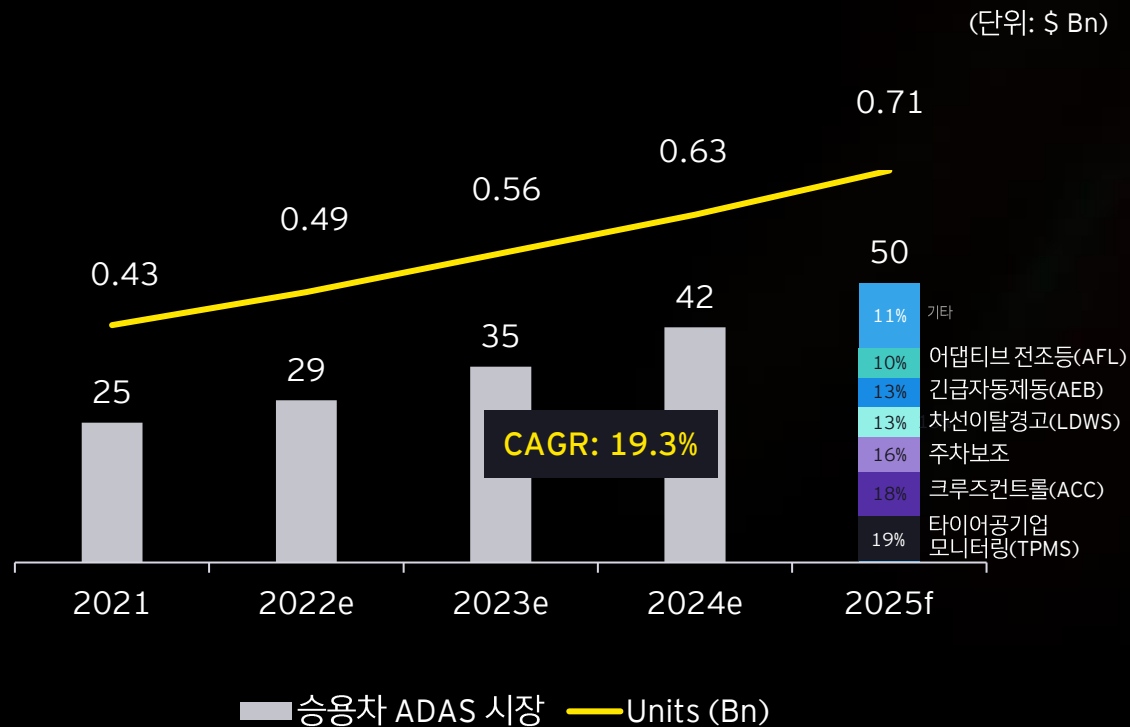
65.1%

현재 독일이 커넥티비티² 기술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으나, 향후 중국이 ~'28년 100% 달성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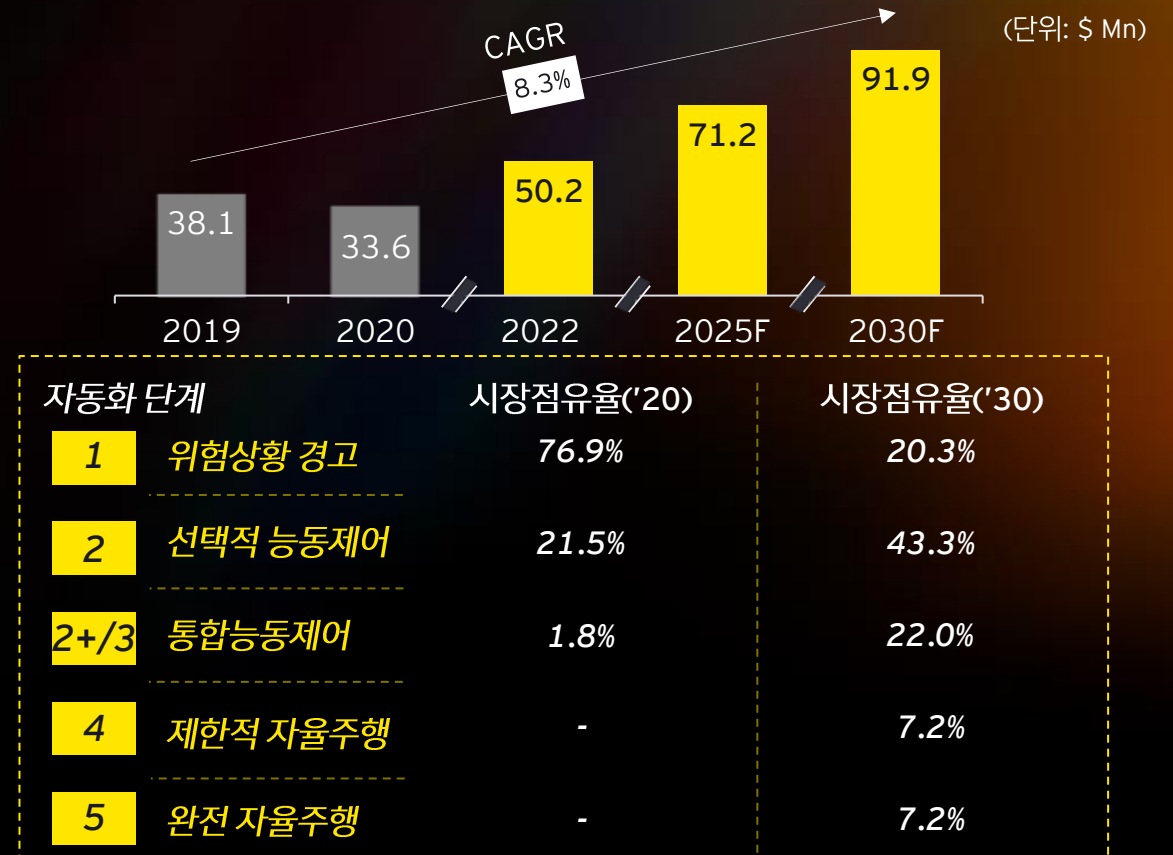
ADAS 시장 동향

ADAS는 이미 대중화(레벨1 시장점유율 76.9%) 되고 있으며, 당분간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글로벌 ADAS 시장('21-'25)



글로벌 ADAS 보급률(L1 이상) ('19-'30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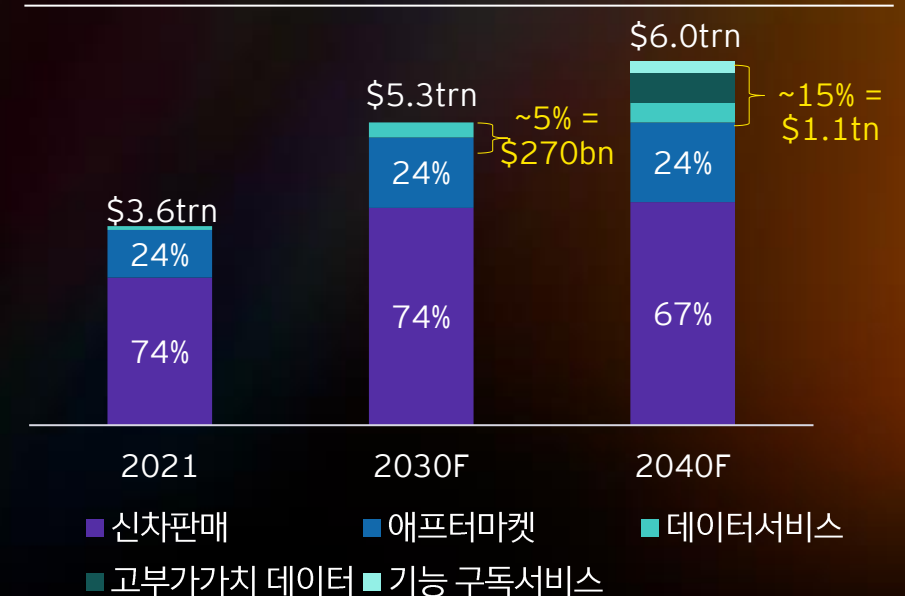
AI for Customer 사례 - ADAS

대부분의 글로벌 OEM사의 차량은 ADAS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그 기술적 수준 또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매출 확보 관점에서 시장을 선도하거나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사례는 테슬라의 Autopilot이 대표적임

ADAS

기업	대표 시스템	도입사례	자율주행 Lvl.
Tesla	Autopilot, FSD	- ACC¹, 자동 차선 변경 등의 기능을 포함한 Autopilot, FSD² 등의 자율주행 옵션 제공 [신뢰성 한계] '19년 이후 4년간 주행보조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736건 발생	Lvl. 2
Ford	Blue Cruise	- ACC¹, DDMS³, 차선 변경 보조 등 기능을 포함한 Blue Cruise 도입 [신뢰성 한계] '24년 Blue Cruise 연관 2건의 사망사고 발생	Lvl. 2
GM	Super Cruise	- Tesla의 FSD²에 준하는 자율주행 Lv.3 수준의 Super Cruise '25년 내 도입 예정 [사용 제한] 사전 매핑된 도로에서만 작동	Lvl. 2
현대차그룹	HDP ⁴	자율주행 Lv.3 시스템으로, 제네시스 G90, 기아 EV9에 탑재 예정이었으나 연기되며 현재 국내 도입 미정	Lvl. 3 목표

Global Automotive 매출 구성



- SDV 확대는 OEM들의 수익원 확대 기회를 증가시킬 것
→ 테슬라 Autopilot이 대표적. 이를 위해 고객들은 \$15,000을 추가지급하고 있음

AI for Customer - First Mover의 가치

테슬라가 타사 대비 비슷한 기술 수준의 ADAS를 통해 추가 수익 및 브랜드 가치를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First Mover로서 시장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임

시장 진입 as a First Mover

빠른 진입

- 2014년 Autopilot 시스템을 양산차에 탑재
 - 킬러서비스: Auto Lane Change¹
- OTA(Over-The-Air) 업데이트로 지속적인 기능 개선 가능
- 초기 완성도는 낮음 (사망사고 발생)

시장 지배를 위한 규모의 성장

1. 규모의 경제

- 자율주행 하드웨어를 모든 Tesla 차량에 기본 탑재 (필요시 추가 구매)

2. 데이터/러닝 커브 효과

- 전세계 도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 수집
→ 테슬라 AI 모델 학습에 사용

3. 네트워크 효과

- 시장규모 증가에 따라 데이터 증가가 지속적으로 향상 → 품질 향상

진입 장벽 강화

후발 주자와의 격차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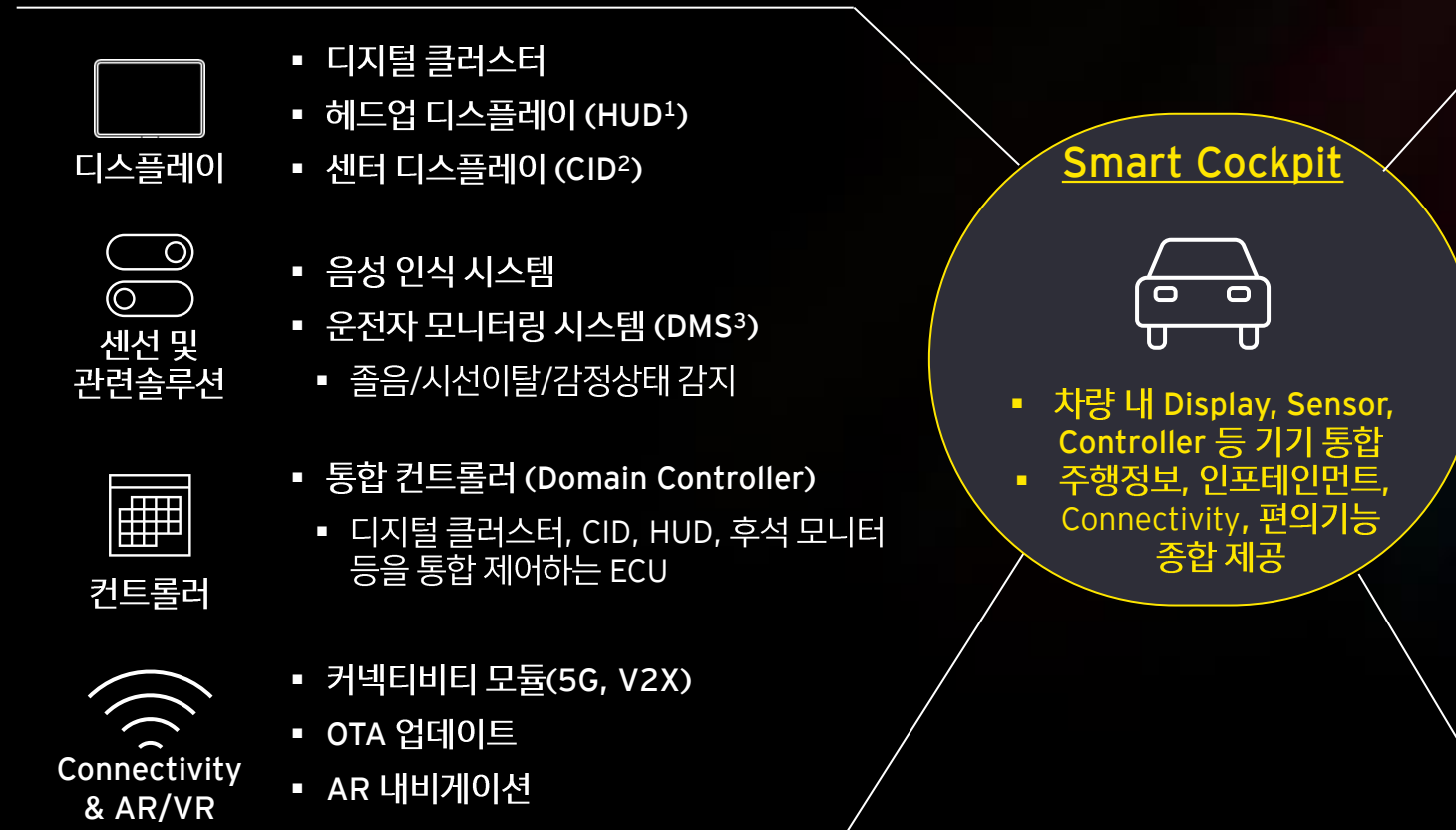
- 자율주행 누적 거리
- OTA 인프라
- 학습용 데이터
- 하드웨어 확장성
- 다양한 서비스 경험을 통한 락인

후발주자는 단순 추격 전략으로는 경쟁 극복이 어려움

스마트 콕핏(Smart Cockpit)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스마트 콕핏은 운전자와 탑승자의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 및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향후 잠재력이 매우 큰 섹터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시장 지배력 있는 서비스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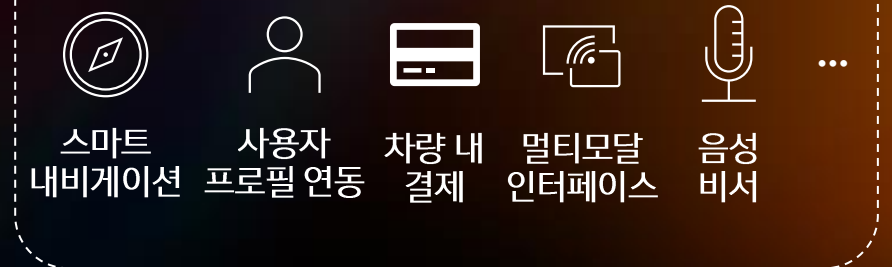
스마트 콕핏 구성요소 및 주요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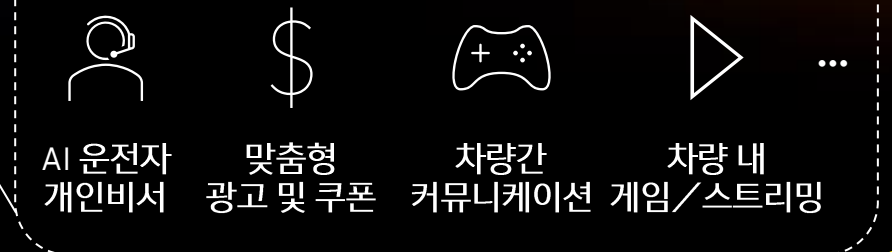
스마트 콕핏을 통한 제공 서비스 종류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나, 대표적 킬러서비스는 부재함

현재 주요 서비스: 편의성 및 안전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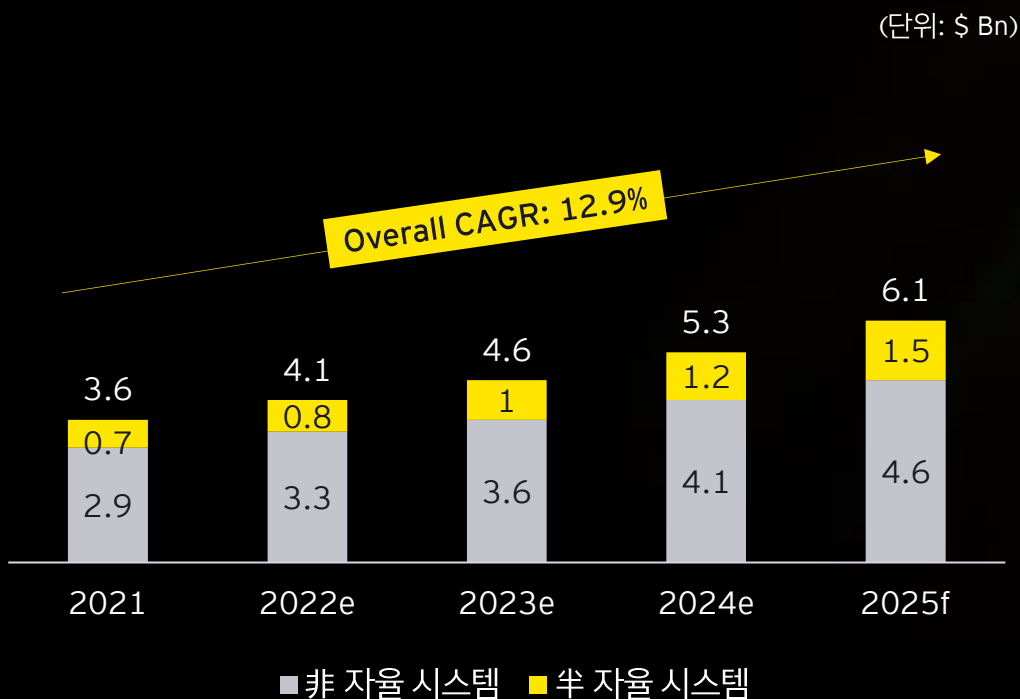
미래 가능 서비스: 개인화 및 생태계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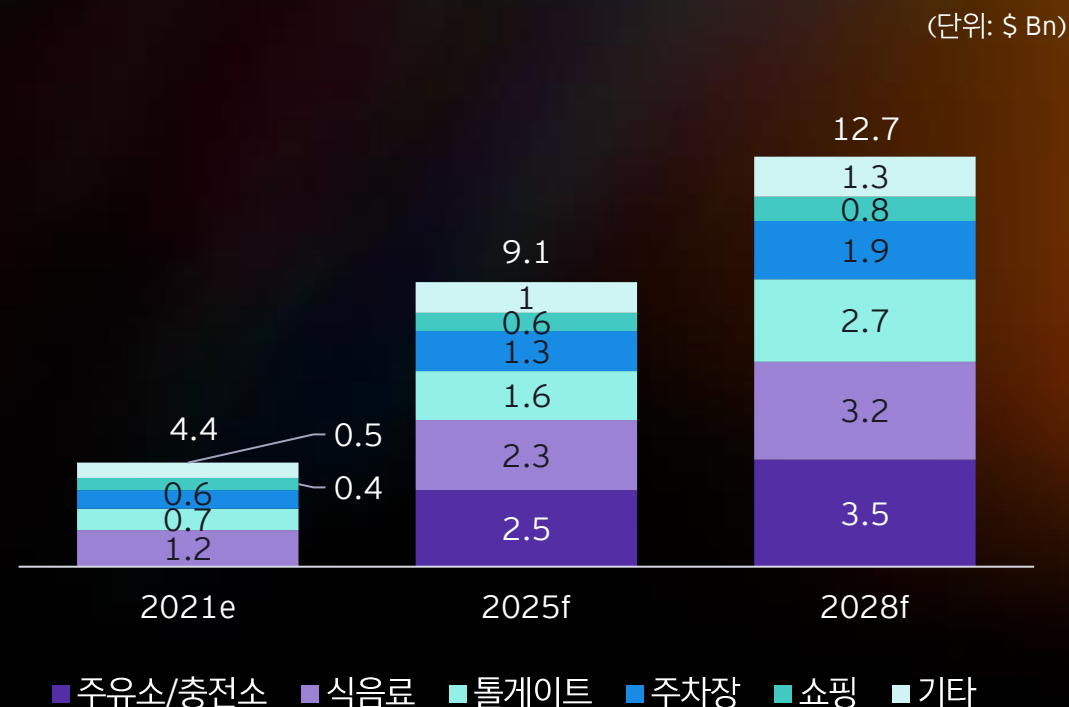
스마트 콕핏 관련 서비스 시장 동향

커넥티드카 시장 성장과 함께 스마트 콕핏 관련 서비스인 디지털 내비게이션 지도 및 결제 시장 역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됨

디지털 내비게이션 지도 시장 ('21-'25)



In-Vehicle 결제 시장 ('21-'28)



AI for Customer 사례 - 스마트 콕핏

글로벌 OEM사의 스마트 콕핏 도입 사례는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으나, 매출 확보 관점에서 시장을 선도하거나 차량 매출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스마트 콕핏

기업	주요 서비스	도입사례
GM X Microsoft	AI 비서	ChatGPT의 차량 적용을 통한 차량 매뉴얼 조회, 차고 도어 코드 설정, 캘린더 일정 연동 기능 및 음성 기반 접근 등의 서비스 제공
Continental X Google	스마트 네비게이션, 차량 제어	클라우드 및 생성형AI 기반 Smart Cockpit HPC⁵ 개발 (대화형 네비게이션, 운전자 개인화, 차량 내 제어 기능 탑재)
BMW X Amazon	AI 비서, 차량 제어	대형 언어 모델과 Alexa를 통합해 다양한 음성 제어 및 실시간 차량 정보를 제공하는 AI 비서를 개발하여 iDrive 9⁶에 적용
Sony Honda Mobility X Microsoft	AI 비서	'26년 출시 예정인 전기차 아필라에 생성형AI 기반 음성 비서를 탑재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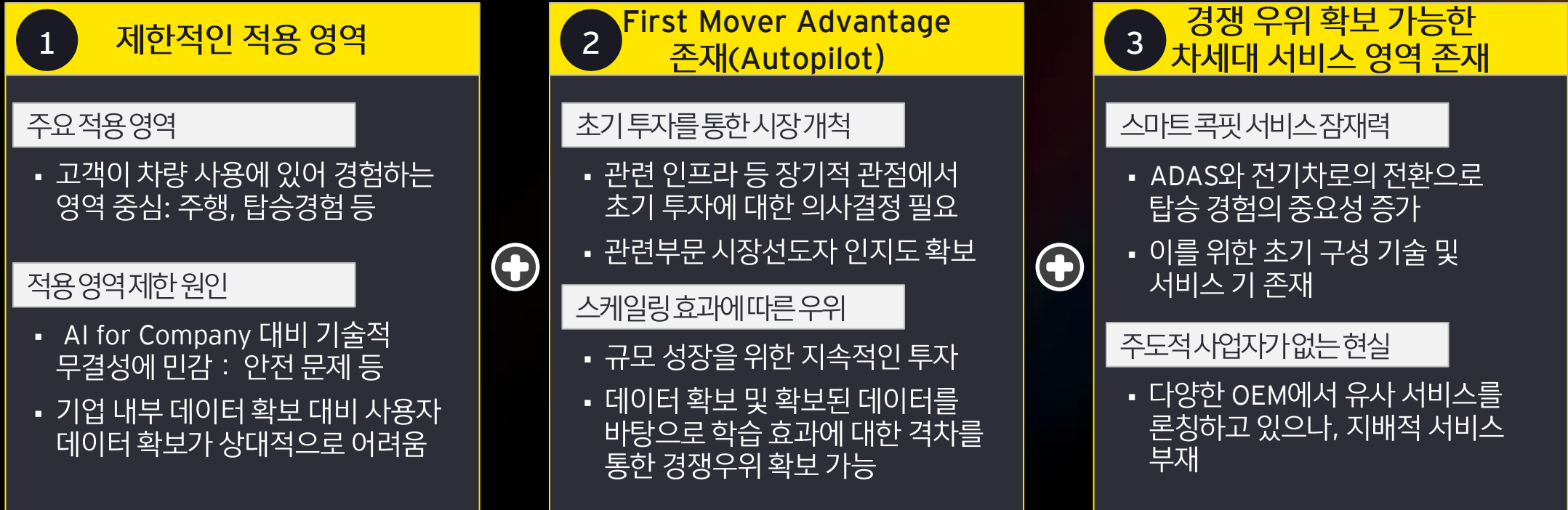
스마트 콕핏 사례 스터디를 통한 Lessons Learned

- 자율 주행과 같이 기술성능으로 우열 구분이 어려움
- H/W가 아닌 UX/UI 경험 영역으로, 브랜드 취향 차이만 발생
- 기술 리더십보다 '생태계' 전쟁 중심 : OEM이 모든걸 지배하기 어려움

Tech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서비스 개발 트렌드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불명확한 차별화 포인트로 인해 킬러서비스는 부재하며 도입 수준 역시 미미함

"플랫폼 락인 효과를 만들기 위한 스케일링 우위를 선점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략 방향 검토가 필요"

‘AI for Customer’를 리드하기 위한 전략 방향성



Cutting-Edge 사례 개발을 통한
First Mover로서 시장 리딩 전략 수립 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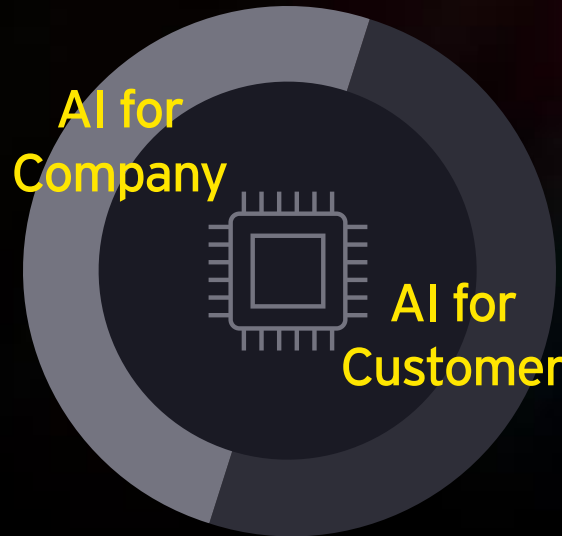
모빌리티 섹터 내 AI 적용 시 예상되는 Challenges

모빌리티 산업 내 AI 적용을 검토 시 적용 대상의 성격에 따라 예상되는 장애 요소가 달라질 것이며, 이에 따라 극복 방안도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

과거 내부 프로세스 혁신 및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 요소와 유사할 것임

극복해야 할 난이도 제약으로 리스크가 높으나, 시장 지배적 서비스가 현재 부재한 것이 기회 요소임

- 1 조직 내 데이터 사일로¹**
 - AI 학습에 필요한 통합 데이터 확보 필요
- 2 현업의 AI 이해도 부족**
 -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협업 및 적용 제한
- 3 운영시스템과 AI 간 연동 문제**
 - AI 연동의 복잡성 및 기술적 제약 존재
- 4 ROI 측정 한계**
 - AI 도입 효과 정량화의 한계
- 5 보안 문제**
 - 개인정보 및 기업 기밀 정보 유출 위험



- 기술 구현 난이도 高**
 - 고도화된 수준의 인지 및 변수 대응 必
- 개발 비용 및 자원 투입 수준 高**
 - 개발/신뢰성 등 각종 테스트 비용 소요 多
- 인프라 제약**
 - 5G, V2X 등 사용자 환경의 인프라 의존도 高
- 데이터 수집 한계**
 - 외부 환경 데이터 확보 및 학습이 제한적
- 안전 규제 달성 난이도 高**
 - 자율주행 등은 엄격한 안전 규제 충족 必

Mobility 산업 내 AI 도입을 위한 전략 제언

AI for Company

**Best Practice 사례를 중심으로
Fast-Follower가 되기 위한 전략 수립 要**

1

단기적 투자 성과 창출 위한 AI for Company
영역 先도입

2

AI 효과 극대화를 위한 내부 데이터 체계화와
통합 플랫폼 선행 준비

3

AI for Company 도입 경험 기반 AI 기술력 축적
및 협업 문화 정착

AI for Customer

**Cutting-Edge 사례 개발을 통한
First Mover로서 시장 리딩 전략 수립 要**

1

AI for Customer 영역을 중장기 R&D
파이프라인으로 관리

2

Tech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비용 절감으로 리스크 분담

3

고객 경험을 설계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 중심이
아닌 사용자 행동 기반 서비스 구조 재편

AI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전략 방향성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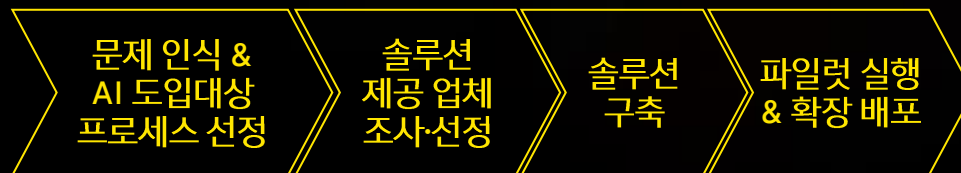
III

AI 사업 기회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

AI 도입의 바벨 전략 접근

AI 중심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위해 선도 기술의 빠른 추격 도입(Fast Follow)과 함께, 선도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동시에 모색하는 '바벨 전략(barbell strategy)' 실행 필요

구분	AI for Company	AI for Customer
기술 초점	성숙/검증 기술	첨단/신흥 기술
주요 목표	효율성 증대, 비용 절감, 품질 개선, 프로세스 최적화	혁신, 차별화, 고객 경험 향상, 신규 기능 제공
전략적 입장	Fast Follower	Open Innovation
제안 방법론	Borrow / License / Collaborate - AI for Company는 성숙, 검증된 솔루션 활용 가능 - 자체 구축보다 빠른 도입이 유리	M&A / JV / 전략적 제휴 / 스타트업 투자 - M&A 등을 통한 핵심 기술, 아이디어, 역량을 내부 혁신에 활용, 시장 출시 속도와 경쟁 우위 확보
도입 프로세스		M&A JV / Build



AI for Company 도입 사례

Continental

X

Microsoft

X

NTT Data

Continental Automotive X Microsoft & NTT DATA는 Microsoft의 Azure AI를 활용한(borrow) 문서 분석 솔루션 구축 개념검증(PoC)¹ 을 3개월 내 성공하며 Borrow를 통한 신속한 AI for company 도입 사례를 보여줌



구분	종전 수동 프로세스	AI 도입 후 프로세스
문서 검색	엔지니어가 직접 스크롤해 수동으로 문서 검토	문서 업로드 즉시 핵심 섹션·키워드 하이라이트
분류	요구사항 별 기능/비기능, 시스템/컴포넌트, 안전·보안 관련성 등을 수작업 태깅 (평균 140분, 전체 프로젝트 30,000시간 초과 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된 AI가 자동 분류·태깅
일관성 검토	중복·충돌 요구사항 수동 식별 및 제조사와 협의하여 불필요 항목 표시	자동으로 중복·모순 감지·표시, 비관련 항목 자동 마킹 후 카탈로그와 실시간 매칭·태깅
보고서 작성	분석 결과 요약 후 엑셀·워드로 보고서 수작업 작성	구조화된 결과를 자동으로 리포트로 출력

Borrow 방식의 도입은 AI for Company에 있어 ▲낮은 초기 투자 비용 ▲검증된 기술 접근성 ▲개발 리스크 감소 ▲빠른 솔루션 배포 의 명확한 장점을 지님

AI for Company 도입 가능 Activity 검토

EY의 Value Creation팀은 과거 기업들에 대한 운영효율화 및 원가 절감 프로젝트 경험을 기반으로 AI 전환을 통해 기업 운영 전반의 효율성과 의사결정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음의 항목을 정의함

	AI 도입 Activity	Task 단위 AI 적용 상세 내용	Performance 향상 효과
1 전략 및 경영관리	소비자 Needs에 맞는 마케팅 전략 수립	- 자동차 시장을 대표하는 Data 수집을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 전반적 고객/시장의 Trend, Needs 파악 - 마케팅 성과 확인을 통한 최적의 대응 방안 마련 - 소셜 Data를 통한 마케팅 전후 고객 반응 확인	- 소비자 리스닝 분석 결과 기반 마케팅 가능 - 브랜드 영향력 증대 - 매출 상승 기대 - 성과 확인을 통한 마케팅 전략의 빠른 대응 가능
	주요 경영Report 발간	Daily 필요 정보 수집, Reporting Template에 자동 작성 및 열람	업무 효율성 향상
2 개발 및 설계	성능, Design 등 신제품 Concept 수립	무게, 강도, 재료 등 특정 매개변수의 제약 조건 기반으로 다양한 Design 옵션 제시	- 최적 설계 가능 - 차량 성능 및 연비 향상 등 - 설계 Process 단축
	빠른 Test/검증을 통한 개발 일정 단축	- 과거 차량 모델 및 시뮬레이션에서 수집된 정보 기반 새로운 디자인, 부품 Spec 등이 어떻게 작동할 지에 대한 예측 - 신 차량/부품 Spec, 환경 조건 등에 따라 Test 결과 예측	- Test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시장 출시 - 안전 및 성능 기준 충족을 위한 빠른 대응 가능

AI for Company 도입 가능 Activity 검토, 계속

EY의 Value Creation팀은 과거 기업들에 대한 운영효율화 및 원가 절감 프로젝트 경험을 기반으로 AI 전환을 통해 기업 운영 전반의 효율성과 의사결정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음의 항목을 정의함

	AI 도입 Activity	Task 단위 AI 적용 상세 내용	Performance 향상 효과
3 S&OP	판매 수요 예측을 통한 공급망 관리 최적화	- 과거 판매 Data, 시장 동향, 경제 지표 등을 분석하여 차량의 향후 수요 예측 - 이를 통한 재고 수준 최적화 가능	- 재고 비용 최적화 가능 - 재고 Shortage 등 Risk 감소
	변화에 대한 대응을 통한 최적 생산 계획 운영	- 차량별 예상/확정 판매 수요, 생산/자재 Leadtime, 생산 표준 정보 등을 통한 최적 생산 계획 1차 수립 - 생산 작업 부하 변화, 자재 수급, 품질 Issue 등 변화 사항 등을 반영한 생산 계획 최적 변경 운영	- 고객 납기 일정 대응 용이 - 가동 중단 없는 최적 생산 운영
4 품질&생산성 관리	우수한 품질관리	주요 공정에서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결함 확인	- 품질 불량 발견율 향상 - 신속한 조치를 통한 낭비 최소화 - Field 불량 가능성 감소
	예측 유지 보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	주요 장비에 대한 진동, 온도, 소음 Data를 기반으로 고장 발생 가능성 예측	- 유지보수 비용 절감 - 생산 중단 시간 감소

AI for Company 도입 가능 Activity 검토, 계속

EY의 Value Creation팀은 과거 기업들에 대한 운영효율화 및 원가 절감 프로젝트 경험을 기반으로 AI 전환을 통해 기업 운영 전반의 효율성과 의사결정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음의 항목을 정의함

	AI 도입 Activity	Task 단위 AI 적용 상세 내용	Performance 향상 효과
5 구매 & 리스크 관리	원소재 가격 예측을 통한 최적 구매	시장 데이터를 활용한 주요 원소재 가격 예측 및 최적 구매 판단 지원	- 유지보수 비용 절감 - 생산 중단 시간 감소
	환율 예측을 통한 환Trading 최적화	일별 환율 추세를 예측, F/X 트레이딩에 적용	환 매도 성과 개선

AI for Customer - M&A 사례

하드웨어 포트폴리오 핵심역량을 보유한 Aptiv는 '22년 Wind River 인수(최종 인수가 \$3.5B)를 통해 SDV 구현을 위한 개발 및 운영 소프트웨어 플랫폼 역량을 일시에 확보하여 내부 혁신에 활용

APTIV → Wind Ri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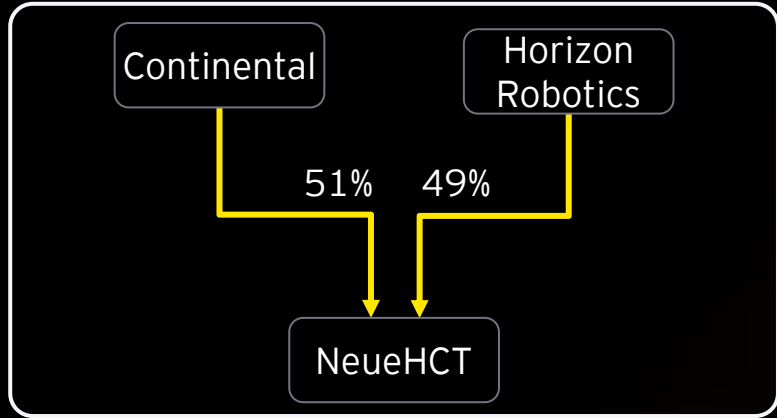
구분	센서 & ECU	E/E 아키텍처	제조	R&D & SW	차량 탑재 SW	서비스 운영
Aptiv(인수전)						
Wind River(인수전)				 ¹	 ²	 ³
Aptiv + Wind River						

- AI for Customer(ADAS · In-Cabin Intelligence · OTA⁴)를 위한 [데이터 획득(센서) → 실시간 AI 추론 → 클라우드 DevSecOps⁵ → OTA]로 끊임없이 학습·배포되는 파이프라인 완성
 - Aptiv는 시장의 SDV 중심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전방 시장(OEM)의 핵심 니즈(End-to-End 솔루션)를 고려한 인수 이행
 - 단순히 기술을 빌려오는(borrow) 방식으로는 파이프라인 달성이 어려움. 인수를 통한 완전한 내재화가 끊임 없는 통합과 최적화 달성의 Key
- 2024년 타 Tier1/OEM(현대모비스 · Tata Elxsi 등)이 Wind River Studio를 채택, Aptiv-Wind River 스택이 레퍼런스 플랫폼으로 자리잡기 시작

1. Wind River Studio (DevSecOps· OTA, Monitoring), 클라우드-네이티브 소프트웨어 개발, 검증, 배포, 운영을 한 번에 관리하는 통합 플랫폼
2. VxWorks RTOS(Real-Time Operating System), Wind River Linux, 엣지 컴퓨팅 환경, 특히 SDV 구조에서 요구되는 실시간성, 기능 안전성,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를 지원하는 플랫폼
3. Studio OTA(대규모 차량-디바이스 원격 업데이트), 차량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를 기획-배포-복구-모니터링하는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
4. Over-The-Air,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무선 통신을 통해 업데이트하는 기술
5. 개발-배포 과정 전반에 보안을 기본적으로 통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AI for Customer - JV 사례

Continental과 Horizon Robotics(이하 “H.R”)는 합작 투자를 통해 H.R의 Journey 시리즈 프로세서 및 AI 알고리즘을 Continental의 ADAS 시스템에 통합하여 신속한 상업화 목표 달성



항목	내용
JV 명칭 / 파트너	Horizon Continental Technology / Continental AG, Horizon Robotics
설립 연도 / 지분구조	2022년 설립 / Continental 51%, H.R 49%
기술 초점	ADAS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솔루션, Level 2/Level 2+ 시스템
JV 현황	다수 OEM 계약 확보, 수백억원 규모 엔젤투자 유치, 2025년 솔루션 탑재 차량 양산 예정
시장 평가	‘로컬(중국) AI 칩+JV 지원’ 모델로 비용 경쟁력과 통합 속도에서 우위

- 양사는 JV를 통해 깊이 있는 칩-센서-소프트웨어-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최적화 달성
→ 단순히 호라이즌 로보틱스의 AI 칩 구매 및 기술 차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양사의 역량 통합 이슈를 JV 설립을 통한 초기단계 협력으로 극복
- JV를 통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협업으로 빠른 시장 침투로 다수 OEM 계약 확보
→ 기술 차용 시 기술적 문제 발생 시 또는 새로운 시장 요구사항(OEM의 커스텀 요구 등) 발생 시, 의사결정 지연 문제를 JV 설립을 통해 극복

JV를 통해 'Borrowing' 수준으로 어려운 깊이 있는 통합, 상호 학습, 전략적 일치, 신속한 실행력 획득 가능

AI for Customer - JV실행 시 검토사항

성공적인 JV를 위해서는 경영전략 및 사업내용, 적합한 파트너 선정, 지배구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특히 향후 모사에 미치는 재무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합작투자(Joint Venture)시 선행 검토사항

1

경영 전략 및 사업내용

- 파생된 기술의 소유권 및 현물자산의 가치를 미리 파악하여 향후 갈등 소지 방지
- 투자대상 자산과 서비스 범위 등 사업내용 명확화

2

적합한 파트너 선정

- 지리적, 제품, 기능, 재무적으로 보완적 능력이 있는 파트너인지 확인
- JV 설립에 대한 의지 확인

3

지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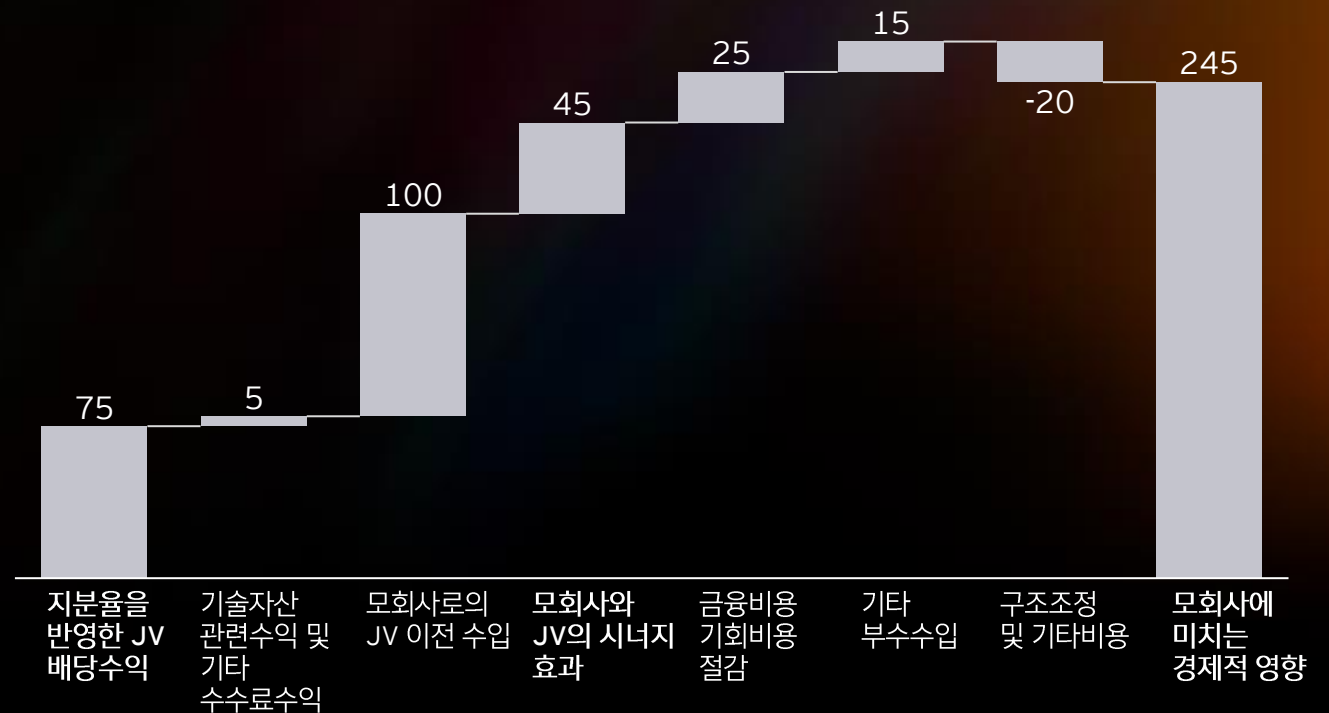
- 적절한 지분율 및 콜옵션 등의 옵션을 통한 향후 Risk 헷지
-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마련

4

경제적 평가

- 초기 투자에 대한 적절한 Valuation
- 파트너사와의 손익 분배 조건 합의
- 모회사에 미치는 영향 검토

[예시] JV가 모회사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IV

정부 정책을 활용한 AI 투자

AI 첨단산업 육성 정책

미국, 중국, EU, 한국 정부는 AI를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 범위와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함

주요 정부 정책 활동

1. AI 인프라 등 공공재 건설 및 확대
 - AI데이터센터, AI 기가팩토리, 양자컴퓨팅
2.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및 인센티브 정책
 - 현금보조금, 세액공제, 저금리대출 등
3. 기술 사업화 지원, 첨단기술 특화 지역 조성, 지역내 협력 강화
4. AI 첨단기술 관련 기준 설정
 - AI 관련법 제정, AI 행동 정상회의

미국 첨단산업 지원 정책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AI 첨단산업 분야의 리더십을 공고히 유지하지만 연방정부/주정부 단계에서도 막대한 투자와 지원을 단행함

시장정책 및 제도적 지원

민간부분 자율성 옹호

- 시장의 논리에 따른 자유 경쟁 체제
-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스타게이트

- AI 인프라 지원
- 민간 자본 활용을 통한 공공재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 이행

AI 개발 정책

- 이념적 편향과 사회적 의제 제거
- 규제완화를 통한 기술적 개발 장려

재정정책적 지원

세액공제

- 미국 연방세법 41조
- 연구개발직 인건비, 소모품비, 외주비 등 대상
- 과거 기본금액을 초과하는 연구비용의 20%

비용공제

- 미국 연방세법 174조
- 연구개발비를 자본화 하고 5년에 걸쳐서 상각
- TCJA 법 개정을 통해 당해 연도 비용 전액 손금처리 방향으로 논의중

주정부 지원사항

- 주정부 차원에서 세액공제 혜택 제공
-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여타 지원사항

- Chips Act, IRA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 간접적 적용
- AI 개발인력 고용 및 교육 관련 인센티브 프로그램 활용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해 인센티브 수령 관련 조사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compliance 중요성이 제고됨

중국 첨단산업 지원 정책

중국은 미국의 정치/경제 제제에도 불구하고 AI첨단산업의 발전속도를 가속화 하고 있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단행함

중앙정부 주요 정책

AI플러스 정책

- 2024년 3월 중국 양회 발표
- AI기술을 전통 산업과 심층적 융합

3중나선형 전략

- AI 분야 종합발전 계획
- 인재 유치, 기술 자립, 인프라 지원

실시의견

- 공업정보화부 외 6개 부처 공동 정책
- 첨단기술 산업화 및 규모화 단계적 추진

재정정책적 지원

지방정부 지원사항

- 베이징, 상해, 선전 등 다수 지역에서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
- 산학협력 및 관련 업계간 협업 환경 조성
- 벤처캐피탈 등 민간자본과의 협력을 통한 개발자금 지원 정책

법인세 감면

- 첨단기술기업의 소득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 적용
- 법정 조건 만족하는 경우 법인세 면제 혹은 감면 적용

세액공제 비용공제

- 적격 연구개발비용의 200% 까지 세액공제 허용
- 자본화된 연구개발비인 경우, 200% 상각 허용
- 적격 연구개발비용을 추가적으로 손금 산입

여타 세제혜택

- 부가가치세 면제
- 연구인력에 대한 소득세 측면 혜택

정책적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의무 조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선택이 필요함

유럽 첨단산업 지원 정책

EU는 AI 첨단산업에서의 기술적 우위와 AI 기술관련 제도적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적인 노력을 경주함

중앙정부 주요 정책

InvestAI Initiative

- 유럽내 4개의 AI 기가팩토리 건설
- InvestAI 기금 조성 (2천억유로 규모)

Horizon Europe

- 매년 10억유로 이상 지원
- AI 기술개발 및 AI활용 프로젝트 지원

AI Act

- 2024년 8월 공포
- AI 개발/사용에 대한 체계적 규제 마련

재정정책적 지원

국가별 지원사항

-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개별국가 별로 AI개발 및 활용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용함

현금보조금

- 독일, 프랑스 등 주요 EU국가들은 연구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현금보조금 제도를 운용함

세액공제 비용공제

- 독일, 프랑스 등 주요 EU국가들은 연구개발 관련 비용을 비용 공제하거나 세액공제 허용함

유럽은 글로벌 AI 혁신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AI 규제 모델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

한국 세액공제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란?

- 국가차원의 미래성장동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하여, 해당 기술과 관련된 R&D 비용과 시설투자 비용을 일정 비율만큼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기술이 법에서 규정하는 신성장 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을 사전심사함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

기술 분야(14개 분야)

1	미래형자동차		8	에너지신산업/환경	
2	지능정보		9	융복합소재	
3	차세대 소프트웨어/보안		10	로봇	
4	콘텐츠		11	항공/우주	
5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12	첨단 소재/부품/장비	
6	차세대 방송통신		13	탄소중립	
7	바이오/헬스		14	방위산업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 분야(8개 분야)

인정 시기: '21년 7월 이후

1	반도체	
2	이차전지	
3	백신	
인정 시기: '23년 1월 이후		
4	디스플레이	

인정 시기: '23년 7월 이후

5	수소	
6	미래형운송및이동수단	
7	바이오의약품	
인정 시기: '25년 3월 이후		
8	인공지능	

한국 세액공제

구분	R&D (연구개발)	사업화 시설투자
공제 요건	- 신성장·국가전략기술의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및 별표7의2에 근거	-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 및 별표6의2에 근거
공제 대상	- 연구개발 투자비용 - 인건비(연구원 또는 연구개발 지원인력) - 재료비(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 구입비 또는 시제품 제작비) -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 - 건축물 및 토지 제외
공제율	- 당기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최대 50% 세액공제 - 일반 : 대기업 ~2%, 중견 8~20%, 중소기업 25% - 신성장 : 중견/대기업 20~35%, 중소기업 30~40% - 국가전략 : 중견/대기업 30~45%, 중소기업 40~50%	- 당기 시설투자 비용 최대 25% 세액공제 (10% 추가공제 별도) - 일반 : 대기업 1% 중견기업 7~7.5% 중소기업 12% - 신성장 : 대기업 3% 중견기업 8~9% 중소기업 14% - 국가전략* : 대기업/중견기업 15~20%, 중소기업 25% *반도체의 경우, 5% 포인트씩 추가
기타 (사후관리)	(전담부서)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전담 연구여야 함 (구분경리) 해당 연구개발비용은 일반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계정 과목, 코드를 분리하여 작성	-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누적생산량 50% 초과해야 함 - 사업화 시설투자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공제액 반환해야 함

한국 첨단전략산업기금

정부는 2025년 3월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발표하고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추진하기로 함

- 첨단전략산업 패권을 둘러싼 국제경쟁은 국가차원의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됨
- 주요 선진국들은 대규모 보조금, 세액공제, 직접투자 등의 방식으로 전략산업을 보호 및 육성함
- 우리나라에는 장기간 인내하며 첨단기술 및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함

기금구조

- 설치 주체 : 산업은행
- 기금 규모 : 5년간 최대 50조 원, 운용기간 20년
- 조달 방식 : 정부보증 기금채권 발행 + 산업은행 자체재원 출연 병행
- 총지원 효과 : 시중은행 등과의 연계를 통해 총 100조 원 이상 자금 동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백신, 로봇, 수소, 미래차, AI 등 국가전략기술 및 관련 인프라·생태계 전반

자금지원 방법

- 지분투자 : SPC 설립을 통한 공동투자, 민간 매칭 요건을 배제한 장기 투자
- 후순위채 : 전력·용수 등 장기 인프라 사업에 대해 위험 분담
- 저금리대출 : 국고채 수준 금리, Syndicated Loan 구조 활용
- 구매자금지원 : 방산 등 수주산업의 해외수주 경쟁력 제고 목적

도입시기

- 2025년 하반기 이후로 전망됨

AI, 바이오,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로의 신규 진입 혹은 기존 사업의 첨단화를 추진하는 경우,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목적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함

Contacts

EY한영 산업연구원

권영대 파트너

young-dae.kwon@kr.ey.com

김광현 상무

kwanghyun.kim@kr.ey.com

정현종 이사

hyun-jong.jeong@kr.ey.com

산업연구원장

실무총괄

EY Mobility Sector 담당

권영대 파트너

Mobility Sector Region Leader

young-dae.kwon@kr.ey.com

정용호 파트너

Mobility Sector 재무자문 담당

yong-ho.jeong@kr.ey.com

정일영 파트너

Mobility Sector 세무자문 담당

ilyoung.chung@kr.ey.com

원유선 대리

yousun.won@kr.ey.com

EY AI 전문가 그룹

김수연 파트너

sooyeon.kim@kr.ey.com

김상진 상무

sang-jin.kim@kr.ey.com

EY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EY is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by creating new value for clients, people, society and the planet, while building trust in capital markets.

Enabled by data, AI and advanced technology, EY teams help client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and develop answers for the most pressing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EY teams work across a full spectrum of services in assurance, consulting, tax, strategy and transactions. Fueled by sector insights, a globally connected, multidisciplinary network and diverse ecosystem partners, EY teams can provide service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All in to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formation about how EY collects and uses personal data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individuals have under data protection legislation are available via ey.com/privacy. EY member firms do not practice law where prohibited by local law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 2025 Ernst & Young Han Young
All Rights Reserved.

APAC No. 05001236
ED None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kr